



## 얼음 깨기

## 길을 잘 아시는 아버지

## 교회행사

한 어린 아이는 바다가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바다를 보러 가고 싶다고 요청하였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아들을 위해 어렵게 시간을 내어 바다로 향했습니다. 밤길을 들리던 아버지와 아들은 곧 짙은 안개로 앞이 잘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불안해하며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앞이 안 보여요!! 괜찮아요? 너무 무서워요.”

그러자 아버지가 아들의 모습에 웃으며 잡을 했습니다.

“괜찮단다, 나는 이 길을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거라. 아들아.”

때론 우리가 걸어가길 바라는 인생길은 어둡고 불확실해 보입니다. 그래서 두렵기도 불안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이미 그 길을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나눔] 우리가 걸어갈 길을 잘 아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의지하며 신뢰할 수 있을까요?

## 10월

6-9일	추석 연휴
12-15일	기을 사경회
18일	데비기닝 선교학교 개강
19일	사역박람회 (3주간)
22일	필그림/ 벤쿠버한인합창단 찬양예배
23일/25일	1차 세례 교육
25일	신중년 야유회/교사컨퍼런스
30일/11월1일	2차 세례교육

## 11월

1일	문답식/굿윌센터 야유회
2일	세례식
9일	성찬식/더가족세미나 개강
16일	추수감사주일
19일	마하나임/트리니티 중창단
29일	데비기닝 선교학교 수료식

## 경배 찬양

## 보혈을 지나

## 선교

## [고은빈 선교사]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후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 소식

## 1. 세례 / 입교 / 학습

11월 2일(주일)에 세례식이 있습니다.

[청장년: 세례/입교/학습] 1회차: 10/23(목) 저녁 7시 30분 2회차: 10/30(목) 저녁 7시 30분  
[청소년: 세례/입교/학습] 1회차: 10/25(토) 오후3시 2회차: 11/1(토) 오후 3시

[유아 세례] 교육&문답 11/1(토) 오후 3시 \*문답식은 11월 1일(토) 오후5시부터 세례식 참석 자를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 2. 유학생을 위한 가을, 겨울옷 모집

네팔과 스리랑카 등 더운 나라에서 온 유학생들이 한국의 가을과 겨울을 잘 지낼 수 있도록 옷을 기부 받고 있습니다. (가을옷, 겨울옷, 신발, 목도리, 장갑 등)

## 한문장 큰 울림

"믿음이란,  
하나님께 자신을 던져버리는 것이다"

-마틴 루터-

## [역대하 33:12]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역대하 말씀은 많은 유다 왕들이 각각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왕들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있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에 따라 심판과 축복이라는 다른 결과를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히스기야에 이어 므낫세가 왕위를 이어받게 되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 악한 길로 행함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가운데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살펴봅시다.

## 1. 하나님을 잊은 므낫세

만나세는 12세에 왕이 되지만 22세까지 히스기야와 함께 나라를 다스렸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22세부터 단독으로 나라를 통치함에 그는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섭니다. 그로 인해 남유다 왕중에 가장 악한 왕이라는 평가를 받게 되며 더 나아가 남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확정시킨 왕이 됩니다.

그의 악한 정치는 우상을 섬길뿐더러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더 나아가 인신제사까지 드리게 됩니다. 그 원인으로는 남유다가 처한 상황을 살펴보게 됩니다. 강대국 앗수르에 의해 좌지우지 되는 약소국으로 앗수르가 섬기는 우상을 따라 섬겨야만 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만나세는 하나님을 잊은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어거스틴은 “하나님을 잊은 인간은 결국 자기를 잊는다”라고 하였습니다. 남유다의 왕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나라를 다스려야 했던 만나세는 결국 하나님을 잊고 자신의 본분을 잊은채 살아가는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나눔] 나는 언제 하나님을 잊고 살아갑니까? 그 시간 가운데 있던 나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나눠봅시다.

## 2. 심판 가운데 회복케 하심

계속되어지는 하나님의 경고 앞에 만나세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결국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십니다. 앗수르 군대가 쳐 들어와 그를 사로잡아 쇠사슬에 묶여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한 나라의 왕으로 모든 수치과 고통을 당하는 시간이 된 것입니다. 최소 5-10년동안 포로 생활을 하며 만나세는 그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정한 주권자이시구나”

C.S. 루이스는 고통의 문제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즐거움 속에서 속삭이시고 양심 속에서 말씀하시며 고통 속에서 외치신다” 우리에게 주어진 고통은 하나님의 외침입니다. 잘못된 길에서 돌아와서 마땅히 걸어야 하는 의의 길을 걸어가야 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눔]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돌아오길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이런 은혜를 경험한 일이 있다면 나눠봅시다.

## 3. 기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붙잡는 것이다.

만나세는 하나님의 징계의 시간을 통해 회개하며 모든 죄악에서 돌아옵니다. 그제서야 그는 히스기야와 함께 했던 모든 통치에 대한 기억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겸손한 마음으로 부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들으십니다. 만나세는 죄가 가장 깊고 악한 왕이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겸손하게 기도하자 하나님은 그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겉으로 드러나는 삶의 모습은 너무 좋지만 반대로 영적으로는 어두워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그분을 의지함으로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풍성한 사랑과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끊을 수 없으리라”

로마서 8장 38-39절

[나눔] 나의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나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결단은 무엇이 있나요?

## 나눔

## [절망의 끝에서 다시 돌아오다 / 역대하 33:1-25]을 통해 받은 은혜와 삶의

적용점을 나눕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우는 나눔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여기에서 같이 세워갑니다.

## 기도

##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

하나님의 약속을 언제나 기억하며 기도하며 주어진 길을 걸어가게 하소서.

## 회개의 은혜를 위해

때로는 죄악된 삶을 살아갈 때라 있더라도 언제나 나를 기다리시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은혜를 주소서.

## 공동체와 함께 가며

공동체를 통해 서로를 돌아보고 함께 성장하며, 주님께 나아가게 하소서.